

2024 Septem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목차

| | |
|-------------|---|
| I. 금리 | 3 |
| I. 달러/원 환율 | 5 |
| III. 엔/원 환율 | 7 |
| IV. 유로/원 환율 | 7 |

금리

8월 동향

월초 미국 실업을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강화 속 국내외 금리 하락. 이후 잭슨홀에서 미국 9월 금리인하 기대감 강화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2%대 후반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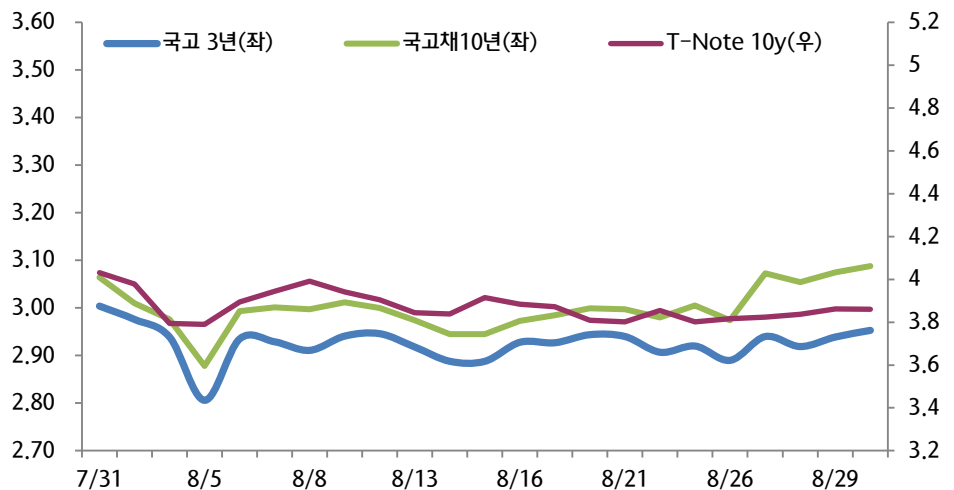
미국 실업을 충격에 따른 침체 공포 확산 등이 국내외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여기에 국내 내수 부진 등 성장 모멘텀 약화 등도 금리 하락에 영향

미국 주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적 기조 전환과 중동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금통위가 금리 등결 결정하며 다소 매파적 기조 보인 가운데 시장의 잭슨홀 피벗 기대 반영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후,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마감

- 월초, 미국 실업을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 공포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되며 큰 폭 하락 후, 주간 실업 관련 지표 호조 등을 반영하며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된 양상 시현
 - 월 초, 7월 FOMC 비둘기 기조 반영한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 후, '삼 법칙'에 의한 미 경기침체 공포 확산 속 2년 국채금리 26.8bp 급락 영향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크게 반영
 - 하지만, 주중 주간 미 실업 지표 개선 국면에 따라 경기침체 공포감이 다소 완화되며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 다만, 국내 내수 부진 등 대내적 경기모멘텀 약화 이슈 등도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
- 중반, 미 주요 물가지표 시장 예상 부합 속 중동 분쟁에 따른 안전자산 강화 요인 등이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연준 비둘기 기조 전환 가능성 등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
 - 중반, 연준 당국자의 실업을 관련 매파적 언급에도 미국 주요 물가지표의 시장 예상 부합과 중동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 시현
 - 이어 미국 주택관련 지표가 부진하면서 시장 금리인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9월 금리인하 논의 적절 소식 등이 이어지며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지속
- 후반, 한은 금통위의 매파적 시장 반응에도 잭슨홀 미팅 9월 '빅컷'에 대한 시장 기대에 따라 큰 폭 하락 양상 보인 후, 일부 연은 인사의 매파 전환 언급 등으로 상승 전환 마감
 - 후반, 한은 금통위에서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4인이 지지했으나 가계부채 우려 등으로 매파 성향 해석된 국면에도 잭슨홀 미팅에서의 9월 '빅컷' 시장 기대 등으로 국내외 금리 큰 폭 하락 시현
 - 이어 일부 연은 총재의 약간의 매파적 언급 등에 따른 미 지표물 금리 상승에 연동 흐름 보인 가운데, 내년도 국내 국고채 발행 규모 확대 소식 등의 수급 영향 반영하며 소폭 상승 흐름 전환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8월 평균
국고채(3년): 2.92%
T-Note(10년): 3.87%

9 월 전망

잭슨홀 미팅 이후 연준 정책 전환 기대를 선반영하는 국면 속 대내적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한 한은 금리 인하 기대 상존 등이 점진적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평균 | 1Q24 | 2Q24 | 3Q24 | 4Q24 |
|------------|------|------|---------------------|---------------------|
| 국고채(3y, %) | 3.30 | 3.38 | 3.00 ^(F) | 2.80 ^(F) |

8월 초반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이후, 잭슨홀 미팅에서 정책 조정 시그널에 대한 시장의 9월 금리 피벗 기대가 확대되는 점이 국내외 금리 전반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향후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힌트가 제시된 점 등이 주요하게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데이터 결과에 따라 피벗 경로가 예상과 다를 수 있는 측면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임
 - 7월 미국 실업률이 4.3%로 상승 추세 나타낸 가운데 CPI도 2%대에 진입하며 연준 통화 정책 경로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정책 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
 - 한편,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 냉각 하방리스크를 언급, 정책 조정에 대한 신호를 명확히 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 하지만 시기와 속도 등을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9월을 포함 11월까지 데이터에 따라 정책 조정 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측면을 배제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

중등 지정학적 이슈는 확산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연준 피벗 지연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상하방 요인으로 예상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중등 불확실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영향은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예상. 동시에 유가 상승 영향 시 연준 피벗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금리 하락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반된 영향 내재된 것으로 판단
 - 중등 불안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강경 대치로 전환되는 가운데 휴전 협상에 진전없이 전쟁 국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은 국내외 금리 하락 요인으로 예상
 - 하지만 유가 상승 우려가 보다 크게 부각할 경우, 연준 피벗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슈에 따라 상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

9월 국고채(3Y) 금리는 2.88%-2.98%

- 국내 수출 호조 국면이나, 내수 부진 확대 속 부문간 차별화 지속하며 산업생산 3개월 연속 감소한 국면. 이에 인하 소수 의견 개진 확대에도,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따른 매파적 인식의 한은 스탠스와 연준 금리 인하 후 정책 피벗 예상되는 점이 단기 금리 하단 지지할 전망
 -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 국면이 이어지는 양상이나 KD의 내수 부진 우려 표명 속 소비 위축도 지속되며 산업생산은 3개월 연속 감소. 이러한 경기적 상황과 물가의 점진적 하락에 따라 한은 금통위에서 3개월내 금리인하 소수의견 개진이 4인에 이른 점 등이 국고채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면, 대내외 금리인하 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 유지한 점과 미국 피벗 이전 신중함 유지하는 한은 매파 성향은 국고채 금리 하단 지지할 것으로 예상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 상승요인 | 하락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등의 우려에 대한 한은 정책 매파 성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연준 '빅컷' 기대에 대한 시장 기대 강화 · 중등 갈등 지속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요인 |

달러/원 환율

8 월 동향

미 고용시장 냉각 조짐과 9월 금리인하 전망에 부합한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달러 약세 압력이 가중되며 환율은 장중 1,310원대까지 급락 후 빅컷 기대가 재조정됨에 따라 1,330원대에서 등락

미 제조업 부진과 실업률 상승 등 침체 우려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국내중시 급락에 상방 변동성 보였으나 엔화 강제 완화와 엔캐리 청산 불안 진정에 1,370원대에서 상당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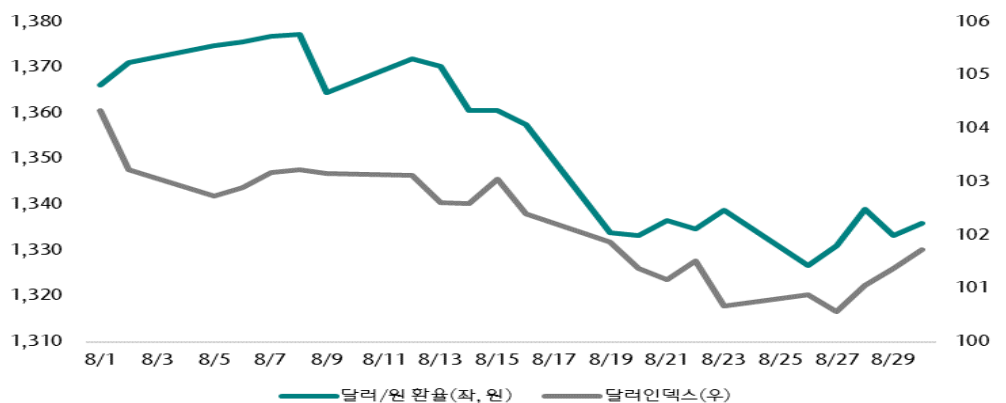
미 물가 둔화에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예상 밖 미 소매판매 호조에 경기침체 공포도 다소 진정되며 위험선호 분위기 속 나타난 급격한 원화 강세에 큰 폭 하락

미 고용 약화 우려를 반영한 연준 9월 피벗 기대에도 잭슨홀 미팅 경계감에 반등. 이후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 보인 파월 의장 연설에 급락했으나 미 GDP 등 견조한 경제지표에 일부 되돌림

- 월초, 7월 FOMC에 대한 비둘기 평가 속 약달러에도 미 고용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국내중시 급락에 상승 출발 후 엔캐리 청산 흐름 진정세에 변동성 제한되며 1,370원대 등락
 - 월초, 파월 의장이 9월 금리인하 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영향으로 달러 약세 나타났으나 미 실업률 4.3% 기록 등 경기침체 불안감 확산과 외국인 순매도 영향 속 국내 중시 급락에 환율은 상승 출발
 -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전이된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에 위험회피 분위기가 짙어지며 1,370원대 횡보 후 BOI 부총재의 비둘기 발언과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엔화 변동성 완화에 추가 상승은 제한
- 월 중반, 미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준 금리인하 기대가 유지됨과 동시에 소비, 고용 관련 지표 개선으로 경기침체 불안도 일부 해소되자 위험선호 분위기 속 원화 강세에 1,330원대로 하락
 - 중반, 양호한 미 실업지표 확인 후 안도감이 유입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신중한 스탠스에도 생산자 물가 둔화와 CPI 2%대 진입에 9월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며 환율은 추가 하락
 - 미 소비지표의 견조함에 고조된 경기 연착륙 기대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역외 매도세와 룡스탑 물량 유입에 급격한 원화 강세 나타나면서 20원 넘게 급락 시현
- 후반, 미 노동시장 냉각과 도비시한 FOMC 의사록에도 잭슨홀 미팅 전 불확실성에 하단 지지 되었으나 파월 의장의 정책 전환 시그널에 급락 후 빅컷 기대 재조정과 매수 우위에 반등
 - 후반, 미 비농업 고용 수정치 하향 조정과 비둘기 FOMC 의사록으로 인한 달러 추가 약세와 금리동결 지지한 8월 금통위에 대한 매파 인식에도 저가 매수세와 잭슨홀 미팅 경계감에 1,330원대 등락
 -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대한 비둘기 평가와 빅컷 기대감 고조에 1,320원대로 급락 후 저점 인식 매수세 유입과 견조한 미 경제 성장세에 금리인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일부 재조정하며 상승 마감

8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52.9
8월말 달러/원 환율 : 1,336.0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9 월 전망

Fed 통화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에 글로벌 달러 약세 기초 유지되며 환율 하락 예상되나, 연준 금리인하 속도 및 폭에 대한 시장 기대 조정과 원화 자체 강세 모멘텀 부재에 하방 경직성을 보일 전망

| 평균 | 1Q24 | 2Q24 | 3Q24 | 4Q24 |
|---------------|-------|-------|----------------------|----------------------|
| 달러/원 환율(원) | 1,329 | 1,370 | 1,350 ^(F) | 1,295 ^(F) |

9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 기대가 고조되며 달러 약세 흐름은 이어지겠으나, 금리인하 속도가 시장 기대보다 더딜 경우 달러 반등할 가능성과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상존 등 환율 상방 리스크도 지속

연준 금리인하 기대로 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정책 경로 차별화에 따른 달러 지지력과 원화의 추가 강세 모멘텀 부재에 환율 하단 지지될 전망

9월 달러/원 환율
1,310원 ~1,350원 예상

- 연준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반영한 약달러 추세는 이어지겠으나 잭슨홀 미팅 이후 선반영된 빅컷 기대가 조정될 측면이 달러 추가 약세를 제한하며 환율은 하방 경직성 보일 전망
 - 파월 의장이 보낸 강력한 피벗 시그널에 시장은 빅컷 기대를 높였으나 건조한 미 2분기 GDP와 2% 상회하는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9월 점도표에서 점진적 속도의 금리인하 경로 제시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연준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 안정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 실업을 상승 등 노동시장 추가 악화 조짐이 확인될 경우 경기침체 우려가 재확산되며 환율 상방 변동성 확대될 전망
-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국면 속 글로벌 달러 약세에 기여한 유로, 엔 강세 흐름이 ECB 추가 금리인하와 BOJ 긴축 지연 시 제한될 가능성도 달러 강세에 지지력 부여할 것으로 예상
 - 일부 ECB 정책위원들이 도비시한 발언 이어가는 가운데 유로존 인플레이션 둔화세와 독일 2분기 경제 역성장 등 유로존 9월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 일본 경제지표 개선에도 엔캐리 청산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과 자민당 총재 선거에 9월 금정위에서 연속 금리인상 단행할 여력이 제한적인 측면은 연준 피벗 기대에도 상대적 엔화 강세를 제한할 요인
- 연준 정책 전환 기대 외에 내수 부진으로 인한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와 이에 따른 한은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 점중 등 원화 추가 강세 이끌 모멘텀 부재한 점도 환율 하단을 지지할 전망
 - 한국 수출 증가세와 설비투자 개선에도 연속 마이너스 기록한 7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감소 전환 등 내수 부진에 편터멘탈 회복이 제한됨에 따라 원화 자체 강세 움직임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8월 금통위 금리동결과 금융안정 의지 표명 등 매파 스탠스에도 물가 등 인하 여건 조성 판단과 3개월내 금리인하 가능성 언급 위원 수 증가에 4분기 금리인하 예상되는 점은 원화 강세 제한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 상승요인 | 하락요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의 연준 금리인하 폭 기대 재조정과 주요국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차별화 속 약달러 되돌림 · 내수 부진과 한은 금리인하 예상 등 대내적 원화 강세 모멘텀 부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FOMC에서의 연준 금리인하 개시 가능성과 글로벌 달러 약세 |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9월 연준 피벗 기대 선반영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과 7월 BOJ 이후 추가 긴축 기대 등이 단기 엔화 강세 요인으로 예상. 하지만, 일본 대외 부문 불확실성 속 외환 당국자 완화 정책 의지 표명 등은 강세 제한 요인으로 예상

8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6.2

8월 엔/원 평균환율 : 925.9

9월 엔/원 예상범위 : 895~925원

- (엔화 동향) BOJ 추가 금리인상 여파로 엔화 강세 기조 속 엔캐리트레이드 청산과 미 리세션 공포로 인한 안전자산 수요에 장중 141엔대까지 급락. 중반, BOJ 부총재의 비둘기 발언과 미 소비, 실업지표 개선 등 침체 우려 완화에 강세폭 되돌리며 149엔 후반대 재진입. 후반, 연준 빅컷 기대 확산과 미-일 금리차 축소에 강세 전환 했으나 BOJ 총재의 매파 발언과 예상을 웃돈 도쿄 근원물가에도 미 소비지출 개선과 연착륙 기대 반영한 강달러에 146엔대에서 마감
- (엔/원 전망) 연준 9월 피벗 기대가 잭슨홀 미팅 이후 높아진 가운데 달러의 점진적 약세 흐름 예상이 엔화 강세 지지 할 것으로 예상. 여기에 BOJ 7월 통화정책 긴축 이후 시장 추가 긴축 기대가 높아진 요인도 선제적 엔화 강세 견인 요인으로 판단. 그러나, 최근 엔화 약세 진정 기미에 따른 물가 안정 요인과 대외 수출부문 약화 우려 속 이에 따른 BOJ 당국자의 완화적 정책 시사 요인 등이 추가적 엔화 강세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
 -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높아진 연준 9월 피벗 기대가 단기적 엔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여기에 BOJ 7월 금정위 이후 시장의 추가 긴축에 대한 높아진 기대도 엔화 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판단
 - 하지만, 최근 엔화 강세에 따른 대외부문 약화에 따른 BOJ 당국자의 통화 완화 지속 의지 표명 등이 단기 강세 제한할 전망 속에 엔/원 환율은 900원 초반 전후에서의 움직임 예상

유로/원 전망

유로존 성장 동력 미약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2% 중반 둔화 국면에 따른 9월 ECB 금리인하 가능성 확대가 유로 약세 견인할 예상. 다만 연준 9월 빅컷 이슈 등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은 유로 하단 지지 요인

8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024

8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91.7

9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65~1,485원

- (유로화 동향) 파월 의장의 9월 피벗 논의 가능성 언급과 미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 속 독일 산업생산 등 일부 지표 개선에 유로화 가치 급등하며 강세 출발. 중반, 미 물가 둔화세와 연준 인사들의 9월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 달러 대비 추가 강세를 보임. 후반, 시장의 빅컷 기대를 높인 도비시한 파월 의장 잭슨홀 연설에 달러 가치 급락 후 ECB 인사의 9월 추가 금리인하 지지 발언과 2% 목표에 근접해가는 유로존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약세 마감
- 유로존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 0.2%를 0.1%p 소폭 상회했음에도 전반적 성장 동력 여전히 미약한 상황.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2% 중반에 머물고 있지만 둔화 흐름 유지된다는 점에서 9월 ECB 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가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다만, 잭슨홀 미팅 이후, 높아진 연준 피벗 기대에 의한 달러 약세 영향 반영 시 유로화 약세 흐름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
 - 유로존 경기에 대한 회복력이 1분기 대비 소폭 강화된 양상이나 여전히 미약. 여기에 물가 지표가 2% 중반에서의 둔화 흐름 유지 예상이 9월 ECB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이며 유로 약세 견인 요인으로 판단
 - 반면, 잭슨홀 미팅 이후 높아진 연준 9월 금리 피벗 기대가 선제적 달러 약세 견인할 측면이 유로 약세 제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로/원은 연준 피벗 기대의 상대적 완화 강세로 1,470원대 등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9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 1 | 2 [휴정] 미국(근로자의날) 중 8월 Caixin 제조업 PMI 일 2Q 자본지출(YoY +6.8%) 기업이익, 매출(YoY +15.1%, 2.3%) 8월 지분 은행 제조업 PMI[F] 호 7월 건축허가(MoM(-6.5%)) 8월 주도은행 후주PMI제조업 영 8월 S&P글로벌 영국 제조업PMI(52.5) | 3 한 8월 CPI, CPI 근원(YoY +2.6%, +2.2%) 미 7월 건설지출(MoM -0.3%) 8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 4 Belge Book 연준 베이지북 공개 미 7월 제조업수주(MoM -3.3%),내구재 주문 [F] 구인이직보고서 구인건수(8,184k) 중 8월 Caixin 종합, 서비스업 PMI 유 7월 PPI(MoM +0.5%, YoY =3.2%) 8월 HCOB 서비스업, 종합 PMI[F] 일 8월 지분 은행 서비스, 종합 PMI[F] 호 8월 주도은행 후주PMI 종합 (51.4) | 5 한 2Q GDP[F](QoQ -0.2%, YoY +2.3%) 미 8월 ADP취업자 변동(122k) Challenger Job Cuts(YoY +9.2%)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유 7월 소매판매(MoM -0.3%, YoY -0.3%) 일 7월 실질 임금증액(YoY +1.1%) | 6 미국 고용보고서 미 8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14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4.3%) 시간당 평균 임금(MoM +0.2%) 시간당 평균 임금(YoY +3.6%) 유 2Q GDP[F](QoQ +0.3%, YoY +0.6%) 고용[F](QoQ +0.2%, YoY +0.8%) 일 7월 가계 소비지출(YoY +1.4%) 동행지수, 선행지수[P] | 7 | |
| 8 | 9 미 7월 도매무역(MoM -0.6%), 도매재고 [F] 소비자신용지수 중 8월 CPI(YoY +0.5%), PPI(YoY -0.8%) 통화공급 M2(YoY +6.3%) 일 2Q GDP[F](QoQ +0.8%, YoY +3.1%) GDP 민간소비[F](QoQ +1.0%) 8월 경기관찰조사 연행, 전망(47.5, 48.3) 공작기계 수출[P](YoY +8.4%) | 10 미국 대선 후보 TV토론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8월 금융위 외사록 공개 미 8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3.7) 중 8월 수출/입(YoY +7.0%, +7.2%) 일 8월 통화량 M2(YoY +1.4%) 영 8월 실업수당청구자비율 (4.7%) 독 8월[F]CPI (YoY, MoM) | 11 지존일, 미국CPI 한 8월 실업률(2.5%) 9월 1~10일 수출/입(YoY +16.7%, +13.4%) 미 8월 CPI(MoM +0.2%, YoY +2.9%) CPI 근원(MoM +0.2%, YoY +3.2%) 일 8월 공작기계 수출[F](YoY +8.4%) | 12 선물옵션 등시만기, ECB회의 미 8월 PPI(MoM +0.1%, YoY +2.2%) PPI 근원(MoM +0.0%, YoY +2.4%) 일 3Q BSI 대형 제조업, 전업종 8월 PPI(MoM +0.3%, YoY +3.0%) 호 9월 소비자인플레이션기대(-0.04%) 영 8월 RICS 주택가격지수 (-19%) | 13 한 7월 통화공급 M2(YoY +0.6%) 8월 수입물가(MoM +0.4%, YoY +9.8%) 수출물가(MoM +0.7%, YoY +12.9%) 미 8월 수입물가(MoM +0.1%, YoY +1.6%) 수출물가(MoM +0.7%, YoY +1.4%) 9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유 7월 산업생산(MoM -0.1%, YoY -3.9%) 일 7월 3차 산업지수, 설비가동률 광공업생산[F](MoM -3.6%, YoY - | 14 | |
| 15 중 8월 광공업생산(YoY +5.1%) 소매판매(YoY +2.7%), 실업률(5.2%) | 16 한국휴장(추석연휴) [휴정] 한국(추석 연휴), 중국(중추절), 일본(경로의 날) 미 9월 뉴욕주 제조업지수(-4.7) 유 2Q 노동비용(YoY +5.1%) | 17 미국FOMC(~18) 한국휴장(추석) [휴정] 한국(추석 연휴), 중국(중추절) [미국 FOMC(~18)] (1) 지난 회의에서 정책금리 5.25~5.50%로 8회 연속 동결, 고용지표에 대한 중요성 언급 (2) 연준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시사하면서 시장은 인하 폭에 주목 미 7월 기업재고(MoM +0.3%) 8월 소매판매(MoM +1.0%) 광공업생산(MoM -0.6%), 설비가동률 9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1.8) | 18 한국휴장(추석연휴) [휴정] 한국(추석 연휴), 홍콩(중추절) 미 8월 주택착공건수(MoM -6.8%) 건축허가(MoM -4.0%) 유 7월 건설 생산(MoM +1.7%, YoY +1.0%) 8월 CPI[F](MoM +0.0%, YoY +2.6%) CPI 근원[F](MoM -0.2%, YoY +2.9%) 일 7월 핵심기계수주(MoM +2.1%, YoY -1.7%) 8월 수출/입(YoY +10.3%, +16.6%) | 19BOJ금정위(~20),BOE통화정책회: 20 BOJ 금융정책위원회(~20) (1) 지난 회의 정책금리 0.25%로 15bp 인상 8차기 국제 매입액 감축 계획 발표 (2) BOJ 금리 인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발 시장 불안 확대되며 추가 인상 가능성 제한 BOE 통화정책회의 : 지난 회의 기준금리 연 5.0%로 25bp 인하. 지난해 9월부터 금리 동결한 이후 첫 인하 미 9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7) 8월 기준주택매매, 선행지수 | 20 유 9월 소비자기대지수[P] 일 8월 전국, 도쿄 CPI(YoY +2.8%, +2.2%) 전국, 도쿄 CPI 근원(YoY +2.6%, +2.2%) 독 8월 PPI (MoM 0.2%, YoY -0.8%) 중 5년대출 프라임금리(3.85%) 1년대출프라임금리 (3.35%) | 21 | |
| 22 | 23 [휴정] 일본(추분 대체 휴일) 한 9월 1~20일 수출/입(YoY +18.5%, +10.1%) 미 9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F] 8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0.34) 유 8월 ECB 1년, 3년 CPI 기대 9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F] | 24 RBA 통화정책회의 [RBA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4.35% 동결, 지난해 11월 25bp 인상 이후 6차례 연속 동결 (2) RBA는 인플레이션 목표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 올해 인화 가능성 낮아짐 한 8월 PPI(MoM -0.1%, YoY +2.6%) 미 9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25.1) 컨퍼런스보트 소비자기대지수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일 9월 지분 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F] | 25 한 8월 소매판매, 백화점, 할인점 매출 9월 소비자심리지수(100.8) 미 8월 신규주택매매(MoM -0.6%) 일 8월 PPI 서비스(YoY +3.0%) 호 8월 CPI YoY | 26 한국 금융안정회의 한국 금융안정회의 7월 BOJ 금정위 외사록 공개 미 2Q GDP, GDP 물가, 개인소비 8월 내구재 주문[P], 미결주택매매 9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3) 독 10월 GfK소비자기대지수 | 27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한 10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비제조업(73, 71) 미 8월 개인소득, 개인소비, 실질 개인소비 PCE 물가, 근원 PCE 물가지수, 도매재고[P], 소매재고 9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중 8월 광공업이익, 산업생산 유 8월 소비자 기대지수[F] 일 7월 동행지수, 선행지수[P] 9월 도쿄 CPI, CPI 근원 | 28 | |
| 29 | 30 한 8월 광공업생산 미 9월 MNI 시카고 PMI 델타스 연준 제조업 활동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중 9월 Caixin 종합, 제조업, 서비스업 PMI 일 8월 소매판매, 백화점, 슈퍼마켓 매출 광공업생산[P], 주택착공지수 연간 주택착공지수 영 2Q[F] GDP(전분기대비)0.6%, YoY 0.9%) | *9월주요 이슈* 연준 베이지북 공개(9/4)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9/10) 선물· 옵션 등시만기일(9/12)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9/12) 유럽중앙은행(ESMO 2024)(9/13~17) 미국 FOMC(경제전망)(9/17~18) BOE 통화정책회의(9/19) BOJ 금융정책위원회(9/19~20) RBA 통화정책회의(9/24)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9/27) | | | | | |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